

계육산업뉴스

Broiler industry

한국계육협회 (Korea Broiler Council)

발행인 : 김홍국 편집 : 이재하 · 최수정
(우 137-0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52-6(남도빌딩 601호)
☎ (02)536-9855 ~ 6 FAX (02)595-6028
기획편집 : 민지미디어 ☎ (02)263-3598

제4권 제10호 통권40호

10

1998

닭똥과 계육 생산성

계분과 닭똥은 내용은 같아도 사용자에 따라 비료도 되고, 환경 저해의 범인으로 되기도 한다. 냄새나고 가스 발생의 원인이 되는 닭똥의 상태를 살펴서 계육 생산에 도움이 되는 항목들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1. 계분을 중요시 하는가?

육계 농장은 계분 냄새의 변화만 맡아도 닭의 성장 상태를 아는 분들이 많은 편이다. 소나 돼지는 똥냄새만 가지고는 일령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나 육계는 비교하기가 쉬운 편이다. 입추한지 1주일령 이내의 작은 계분들에서 나는 냄새는 약간 귀엽고 새콤하다고나 할까? 자그마한 펠렛처럼, 혹은 콩알처럼 떨어진 병아리 똥은 초롱초롱한 눈망울들이 일제히 한 방향을 바라볼 때의 산뜻한 표정처럼 예쁘기까지 하다.

하지만 전기사료로 교체하면서 닭똥은 점차 계분으로 바뀌는데, 굵은 물펠렛이나 작은 동전 뭉치처럼 커지면서 특유의 냄새와 함께 깔짚을 오염시키기 시작한다. 우리는 냄새의 변화와 변의 끓은 정도, 색깔의 상태를 보면서 현재 닭들의 소화기관 능력과 성장들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온도를 낮춰주는 기준이 머리에 나는 면모추가 텔갈이 되었는가에 달렸다면 사료량과 사료교체시기, 성장속도 등은 계분을 보고 많이 예측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2. 계분이 닭상태를 말해준다.

정상적인 상태의 닭똥은 회흑색을 띠며 흰색의 요산이 묻어 있는 것이다. 소장에서 소화액과 혀장, 담즙분비가 정상이고 음수량과 환기, 사료등이 잘 조화될 때면 비교적 굳거나 단단한 똥, 즉 경변의 발생율이 50%를 상회하게 된다.

그러나 심하게 놀라거나 더위, 스트레스와 각종 질병에 감염되는 초기에는 담즙분비량은 대폭 증가되고 사료섭취량은 오히려 감소하므로 자연히 똥색은 푸른빛을 띠는 녹색변이 나오게 된다. 뉴캐슬 등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변화가 바로 계분색의 변화가 될지도 모른다.

계분이 끓게 되고 적색변이 증가되면 누구나 대장염 또는 맹장 콕시듐을 의심하게 된다. 대장염에 의한 장내부 출혈이나 콕시듐 원충에 의해 출혈된 것이 계분색을 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3주령 이후에는 짙은 밤색, 갈색을 띠는 죄콜렛변이 종종 나타나기도 하는데 소장 상부에 주로 발생하는 콕시듐 A·E가 발병하면 출혈된 피가 소장에서 소화된 후에 배출되므로 밤갈색을 띠게 되는 것이다. 더운 여름철에 음수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오염된 물 섭취시에 변이 끓어 지는 경우가 많다. 충분하게 장내에서 소화된 후 배설되지 못한 사료들은 닭의 성장에도 손해를 주지만 짙은 계분들은 많은 암모니아 가스 등의 유해가스를 발생시키므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결국 적색변, 녹변, 갈색변, 물똥 등은 현재 닭이 비정상 하에 있으며 사육성적 저하가 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3. 정상적인 계분을 만들어 주자.

100% 배합사료와 물만 먹고 성장하는 닭들에게 사료영양 수준과 음수량과 수질, 소화기성 질병의 예방 등이 제일 먼저 검토되어야 할 항목이다.

병아리가 입추된 후 몸속에 남아있는 난황의 충분한 소화와 작은 양의 사료를 입불이용으로 먹어도 모두 소화가 잘 되도록 소화제와 영양제, 항생제 등이 첨가된 전문적인 초이사료(Prestarter)의 급여가 우선적이다. 후기사료로 교체무렵은 백신 역가와 모체이행 항체의 저하 등 이중의 스트레스 속에서 사료교체와 성장하는 닭들이므로 사육면적까지 스트레스로 닭에게 영향을 주기 쉽다. 따라서 소화기성 질병 예방을 위해서 특히 대장균증과 콕시듐 등의 대표적 질병 억제를 위해 충분한 두께와 좋은 재질의 깔짚사용이 중요하다. 출하 후에 약제살포를 하며 재입추하는 계군의 뚱이 과연 정상적이었는지도 살펴볼만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좋은 원료와 영양제로 잘 만든 사료공급과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소독을 하는 환경이 좋은 계분과 우수한 계육 생산의 일등공신이 될 것이다.